



호주 캔버라 나라분다 볼파크에서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스프링캠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고명성이 스피드 측정을 위해 스타트를 끊고 있다. 오른쪽은 윤영철과 장민기가 불펜 피칭을 하는 모습.

화창한 호주 하늘...선수들 컨디션도 '맑음'



KIA 타이거즈 스프링 캠프

호주 캔버라=김여울 기자 YouTube 광주일보

KIA 타이거즈 호주 캔버라 캠프에 다시 헤가 뒀다. 지난 5일 KIA는 하늘만 올려봤다. 캔버라 나라분다 볼파크에 스프링캠프를 차린 뒤 처음 이곳에 비가 내리면서 그라운드 훈련을 최소화하는 등 스케줄에 변화가 있었다. 비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면서 6일 스케줄도 조정됐다. 앞서 오전 그라운드 훈련 뒤 오후 웨이트 일정을

투수들 드라이브 라인 시스템 데이터 통해 피칭 가다듬고 타자들 웨이트 후 야외 배팅 게이지서 방망이 맘껏 휘둘러

로 캠프를 진행했던 KIA는 훈련 순서를 바꿨다. 다행히 비가 일찍 그치면서 KIA는 6일 준비한 훈련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선수들은 모처럼 웨이트를 하면서 오전의 여유를 즐긴 뒤 오후 나라분다 볼파크로 향했다. 실내에서 간단하게 타격 훈련을 했던 야수들은 배팅 게이지에서 시원하게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감을 끌어올렸다. 경기장 두 면을 모두 활용해 수비 훈련 등도 예정대로 진행했다. 하루 만에 마운드 페이스도 더 빨라졌다. 캠프 첫 터에서 불펜 피칭에 나선 투수들이 이

날 두 번째 피칭을 위해 유니폼을 챙겨있었다. 임기영, 최지민, 이형범, 조대현, 장민기, 장현식, 윤영철, 임중현, 유승철이 불펜에서 공을 던졌다. 새로운 장비도 등장했다. 드라이브 라인 시스템을 통해 투수들의 움직임이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한 장비가 불펜 마지막 라인에 설치됐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 불펜 피칭에 나선 윤영철에게는 익숙한 장비. KIA는 지난 겨울 33박 34일 일정으로 윤영철과 함께 정해영-이리리-황동하-곽도규를 미국 시애틀에 있는 드라이브 라인에 파견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트레이닝 센터에서

세밀하게 자신의 장단점 등을 파악했던 윤영철은 본격적인 실전에 앞서 다시 자신의 피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영철은 "공 릴리즈 나올 때 던지는 것을 슬로우 모션으로 찍었다. 그 구종에서 손모양이 어떤지, 어떤 식으로 공을 누르는지 보면서 조금씩 변화를 준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공이 안 나왔으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변화를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영철은 30개의 공을 던지면서 직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점검했다. 특히 직구 제구에 신경 쓴 윤영철의 최고 구속은 143km를 찍었다. 캠프 첫 터부터 불펜 피칭을 하면서 몸을 풀었던 투수들은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통해 세밀하게 피칭을 가다듬게 된다. 투구 개수도 늘려가고, 포수들과

도 조를 바꿔 서로를 익히는 시간도 갖는다. 흐름은 좋다. 이날 서울고 후배 주효상과 배터리 호흡을 맞춘 장현식은 "지금까지 스프링 캠프에서 했던 두 번째 피칭 중에서 느낌이 가장 좋았다. 비 시즌에 계획대로 준비한 게 잘 되니까 좋은 공이 나온 것 같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새 장비와 선수들의 좋은 컨디션 덕분에 정재훈 투수 코치는 더 바빠졌다. "선수들이 오버 페이스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한 정재훈 코치는 "다들 준비를 정말 잘해왔다. 요즘에는 비 시즌이 두 달 정도 되니까 확실한 선수들이 준비를 잘한다. 어깨와 몸 컨디션 뿐만 아니라 센터, 아카데미, 홈구장 등에서 공을 많이 던지고 오기 때문에 바로 실전 들어갈 때도 덜 부담을 다 만들어 온다. 전원 다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글=사진=wool@kwangju.co.kr

“욕심 비우고 마운드에서 당당하게 내 모습 보일 것”



KIA 좌완 사이드암 김대우

욕심을 버린 김대우가 '김대우 찾기'에 나섰다. KIA 타이거즈 좌완 사이드암 김대우는 지난해 스프링캠프에서 가장 주목 받는 불펜 투수 중 한 명이었다. 포수 박동원의 FA 보상 선수로 KIA로 이적한 그는 경험과 특유의 패기 넘치는 피칭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지난 시즌 김대우는 41경기에서 나와 24.2이닝을 소화하는 데 그쳤고 2021년 2.13, 2022년 2.04였던 평균자책점은 5.11로 치솟았다. 김대우는 시즌 중반에는 부상으로 재활 조에도 머무는 등 새 팀에서 힘든 첫해를 보냈다. 김대우가 자리를 비운 사이 최지민이라는 '깜

짝 스타'가 탄생하는 등 불펜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지난 시즌과는 다른 분위기에서 캠프를 시작한 김대우는 욕심을 비우고 그 자리에 자신감을 채우고 있다. 김대우는 "욕심을 너무 부렸다. 지난해 욕심이 안 날 수가 없었다. 내려놓으려고 해도 잘 안됐다. 내가 할 것만 딱바로 하면 되는데 주변을 돌아보고, 시선, 판단을 신경 쓰고 있었다"며 "작년에 한 번 맞았으니까 잘해야 한다. 진짜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쉬운 시즌이었지만 자신감은 있다. KBO리그에서도 인정 받는 불펜 투수로 활약한 경험,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 김대우는 "지난해 욕심을 비우고 다시 와서 했을 때 하던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다. 잘하는 방법을 해봤으니까, 남들보다는 잘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노력해야 한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스파이크끈을 다시 조여 맨 김대우는 지난 5일 캠프 첫 불펜 피칭을 소화했다. 다시 유니폼을 입고 시작한다는 자체로도 의미가 있던 날이었다. 김대우는 "생각보다 준비한 대로 던져진 것 같다. 괜찮았다"며 "무엇보다 오랜만에 유니폼을 입어서 좋았다. 겨울에도 적응하려고 바지까지 입고 있었는데 상의까지 다 갖춰 입고 하는 것은 다르다. 뭔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되고, 에너지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본 좋게 첫걸음을 뒀지만 김대우 앞에는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다. 김대우는 "지난해 팀이 포스트 시즌에 못 갔는데 나만 똑바로 했으면 됐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다. 또 누군가 안 좋은 모습이 나올 때 대체자가 나온다. 불펜은 더 그러다. 그래서 최지민이라는

선수가 나타났다. 워낙 좋은 것을 가진 선수다"며 "경쟁이 붙는 것은 팀 입장에서 좋은 것이다. 나는 다시 잘해야겠고, 지민이는 잘했으니까 지키고 싶은 것이다. 자리를 비운 순간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인지하니까 팀은 더 단단해질 것이다. 불펜 댄스가 강해지면 팀이 강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절실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하면서 잘할 수 있는 것을 단단하게 하자는 생각이다. 단점을 생각하면 이를 보완하려다가 끝난다. 장점을 극대화해야 한다.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내 모습을 되찾고 싶다"며 "마운드에서 당당함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웃고 즐기면서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 표현하고 싶다. 표현력이 켜는데 그게 많이 사라지고 의기소침해졌다. 당당하게 표현도 많이 하면서 하겠다. 팬들도 그런 모습을 더 좋아할 것이다"고 2024시즌의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PGA 4월 11일 시즌 개막전...총상금 250억 돌파 기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는 2024 시즌 KPGA 투어 개막전 제19회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총상금 7억원)을 4월 11일부터 나흘간 강원도 춘천 라비에벨CC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KPGA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원섭 회장 취임 간담회를 개최하고 "22개 대회 개최가 확정됐고, 시즌 총상금은 사상 최초로 250억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2024시즌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시즌은 개막전을 시작으로 마지막 대회인 KPGA 투어 챔피언십이 끝나는 11월 10일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되며 대회 수는 지난 시즌과 같은 22개다. 총상금 규모는 현재 181억 5000만원이 확정됐으

며 아직 총상금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제43회 GS칼텍스 매경오픈, 코오롱 제67회 한국오픈, 제네시스 챔피언십, 신규 대회 등 4개 대회 상금이 추가되면 250억원을 넘길 수도 있다. 상금 규모가 미정인 대회들은 지난해의 경우 GS칼텍스 매경오픈이 13억원, 코오롱 한국오픈 14억원, 제네시스 챔피언십 15억원 규모로 열렸다. 따라서 이들 대회 상금이 지난 해와 같다고 가정하면 223억 5000만원이 되고, 여기에 신규 대회 상금을 더하면 최소한 230억원은 넘길 것이 유력하다. 지금까지 KPGA 투어 시즌 최다 총상금은 2023 시즌의 237억원, 2위는 2022시즌의 203억원이다. 올해 신설되는 대회는 7개로 KPGA 파운더스컵

과 웨케시그룹-원더클럽오픈, 동아쏘시오그룹 체리티오픈(가칭) 등이다. 또 총상금 규모가 가장 큰 대회는 제67회 KPGA 선수권대회로 지난해보다 1억원 늘어난 16억원이 걸려 있다. 이번 시즌 투어 최소 총상금 기준은 지난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랐다. 외국 투어와 공동 주관 대회는 4개다. GS칼텍스 매경오픈과 코오롱 한국오픈이 아시아인 투어와 공동 주관하고,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은 일본프로골프투어(JGTO)와 함께 대회를 연다. 또 제40회 신한동해오픈은 KPGA와 아시아인투어, JGTO 등 3개 단체가 공동 주관한다. /연합뉴스

KIA 퓨처스 선수단 일본서 시즌 준비

손승락 퓨처스 감독 등 40명 참가 KIA 타이거즈 퓨처스 선수단이 일본에서 2024시즌을 준비한다. 퓨처스 선수단이 8일 스프링캠프를 위해 일본 고지로 떠난다. 내달 5일까지 진행되는 캠프는 고치시 동부 야구장에서 진행된다. 손승락 퓨처스 감독을 필두로 14명의 코칭스태프와 투수 13명, 포수 3명 내야수 7명, 외야수 3명 등 총 40명의 선수단이 캠프에 참가한다. 퓨처스 캠프는 4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전개되며 체력·기술·전술훈련과 함께 실전 준비도 이뤄진다.

선수단은 2월 26일부터 한화 이글스와 3경기, 카가와 올리브-토쿠시마 인디고삭스 등 일본 독립구단과의 맞대결 등 총 5차례 연습경기를 소화한다. ◇KIA 타이거즈 퓨처스 고치-다카마쓰 캠프 명단 ▲감독 : 손승락 ▲코칭스태프 : 이정호, 이상화 최희섭 이해창 윤해진 ▲투수 : 김건국 김사운 김유신 김현수 김찬민 박건우 오규석 유지성 이도현 홍원빈 김태운 김민재 성영탁 ▲포수 : 권혁경 이상주 이상준 ▲내야수 : 김도원 장시현 최수빈 홍종표 황대인 강민재 김두현 ▲외야수 : 김민수 김원경 오정환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